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

COMITÉ EJECUTIVO NACIONAL



격주 뉴스레터 – 해당 분야의 주요 사건 전 세계 우편 서비스

제9호

2026년 제17차 2주 기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미국

- 미국 연방대법원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전 유권자 명부와 대조하도록 규정한 연방 규정에 대해 내려진 예비적 금지명령을 유지했습니다. 9월 10일, 미국 우편노조(APWU)의 조나단 스미스(Jonathan Smith) 위원장은 일선 현장 직원들이 “법적 공방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조는 11월 선거를 불과 몇 주 앞두고 사전 교육이나 명확한 지침 없이 투표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업무 절차와 유권자의 권리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전미우편배달원협회(NALC)는 의회가 ‘우편배달원 보호법(Protect Our Letter Carriers Act)’을 통과시키도록 대외적인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배달 업무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마스터키(만능열쇠) 절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물리적 보안 강화와 법적 처벌 수위 상향 조치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 캐나다 우정공사(Canada Post)는 가정 방문 우편 배달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동 우편함(communit mailbox)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약 13만 6천 가구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캐나다 우편노조(CUPW)는 최근 이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우편 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자연 감소를 통해 전체 인력을 감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CUPW는 공동 우편함 시설 설치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조치에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인 파업을 포함해 2년 넘게 이어진 힘겨운 분쟁 끝에, CUPW와 캐나다 우정공사는 현재 새로운 5년 계약(2029년 1월까지 유효)의 모든 조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노조 위원회는 연금 기금 보호, 도시 및 농촌 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권, 주말 택배 배송 운영 모델 등 합의를 통해 확보된 권익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엘살바도르

- 우정국 노조(SITRACORREOS) 대표들이 제기한 ‘민관협력(PPP) 특별법’ 개정 관련 논의는 여전히 노동계의 핵심 의제로 남아 있습니다. 입법회의에 제출된 이 개정안은 우정국을 민관협력 체계에 법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낙후된 우편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소포 배송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국영 우편 집배원 및 행정 직원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전면적 민영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지난 2주간 집배원과 창구 직원들은 (2020년 이후 동결되었던) 국내외 우편 요금 조정에 따른 시장 안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감당해 왔습니다. 노조는 ‘메르카데리아 익스프레스(Mercadería Express)’ 및 특급 배송과 같은 새롭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도입됨에 따라,

엘살바도르 전역의 배송 인력을 위한 업무량 재검토와 자원 및 물품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 미국으로 발송되는 소형 화물에 대한 규제(800달러 미만 화물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분류 센터의 운영팀은 업무 절차를 조정해야 했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이러한 상황이 코스타리카 중소기업(SME)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며, 국제 화물 수거 경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업 관리팀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코스타리카 공공서비스규제청(Aresep)의 승인에 따라, 코스타리카 우정국(Correos de Costa Rica)은 일부 전통적 우편 서비스 요금을 최대 206%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요금 체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정국은 이번 요금 인상이 일반 우편 발송 물량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대응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ANEP 등과 연대해 온 노동계 대표 및 노조 지부들은 전통적 우편 물량 감소가 이사회원의 인력 감축 명분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신 우편 집배원들을 재교육하여 상업용 택배(전자상거래) 등 수요가 높은 분야로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쿠바

- 마누엘 마레로 크루스(Manuel Marrero Cruz) 총리가 발표한 쿠바 정부의 긴축 계획(다수의 공공 행정직 감축 포함)에 따라, 공공 기업들은 9월 중순까지 조직 개편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통신·정보기술·전자산업 노동조합(SNTIE)은 우편 지부의 개편 과정을 감독하며, 현장 우편 집배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해 공석이 된 행정직을 충원하지 않고 동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우체국 전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정전 사태가 잦아짐에 따라, 9월 초부터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 대응 계획이 가동되었습니다. 우편 노동자들은 정전으로 인한 긴 대기 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특별 수동 업무 절차를 도입하여, 수천 명의 은퇴자에게 현금 연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 2026년 9월 15일, 프랑스 전역의 라 포스트(La Poste) 지점에서 야간에 진행된 IT 시스템 업데이트 오류로 인한 대규모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표 구매 및 우편물·소포 발송 등 창구 업무가 마비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지점 직원들의 업무 부담 또한 가중되었습니다.
- 라 포스트 노조(FO Com, SUD PTT 등)는 2026년 9월 2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위한 조직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편 노조는 사측과 정부가 강요하는 긴축 정책의 종단을 요구하는 한편, 실질 구매력 하락을 보전하기 위한 임금 인상과 전국 우체국 내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
COMITÉ EJECUTIVO NACIONAL



독일

- 최근 독일 도이치 포스트(Deutsche Post) 및 DHL의 노조 대표들은 유럽연합(EU)의 우편 서비스 지침(Postal Services Directive) 개정을 요구하는 UNI 글로벌 유니온(UNI Global Union) 주도의 대규모 압박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독일 노조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Universal Postal Service)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유럽 우편 시장의 규제 완화 시도를 저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행 지침이 기존 공공 우편 사업자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안정적인 고용 조건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 2026년 9월 2일, 독일의 강력한 통합 서비스 노조인 베르디(ver.di)는 48시간 경고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이 파업으로 인해 독일 북부의 전략적 항만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후 5,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독일 항만운행사협회(ZDS)가 제시한 임금안을 거부하면서 월 중순 들어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사측의 제안에 대해 64.7%가 반대함에 따라, 베르디는 대규모 무기한 파업에 대한 정식 찬반 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 국영 기업인 중국우정(China Post)의 노조는 최근 실무 회의에서 인구 밀집 도심 지역에 도입되기 시작한 자율주행 배송 차량과 드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노조 대표들은 기술 도입 계획에 사측 비용으로 운영되는 의무 재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기존 집배원들을 자율주행 차량 관리자나 도심 물류 센터의 물류 기술자로 전환 배치함으로써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2026년 9월 초, 중국우정 노조는 제10회 '919 우편 농산물 축제(919 Postal Agricultural Products Festival)'의 일환으로 현장 직원들을 위한 대규모 참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노조가 주도한 이 캠페인은 농촌 지역 집배원과 배송 인력이 우편 부문의 새로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의 초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당 계획은 외딴 농촌 마을의 '라스트 마일(최종 배송 단계)'을 현대적 물류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 9월 상반기, 조합원 2만 7천여 명을 둔 해당 업계 최대 규모 노조인 전국우정노조(KPWU)의 내부 조직 개편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 노조는 조합비 횡령 혐의로 전임 집행부가 축출되고 법적 조치를 받게 됨에 따라 현재 조직 재정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 한국노동재단은 노조 대표들과 협력하여 오토바이 배달원 및 택배 기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 캠페인인 '2026 안전 브릿지 프로젝트(Safety Bridge Project)'를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알고리즘으로 인해 신속한 배송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캠페인은 이륜차 안전 점검과 의무 건강 상담을 실시합니다. 노동자 위원회는 이번 달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한국 택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만성적이고 극심한 피로'로 인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이 선임한 재정 회생 관리인들이 해당 공기업의 회생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선언한 후, 9월 상반기에는 신임 이사회로의 경영권 이양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통신노조(CWU)와 민주우편통신노조(DEPACU) 등 주요 노조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비용(대규모 인력 감축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SAPO(남아프리카공화국 우정공사)의 재무 상태가 이론적으로는 지금 능력을 회복했으나, 노조는 이러한 성과가 4,300명 이상의 노동자 대량 해고와 전국 350개 이상의 지점 영구 폐쇄를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노동조합연맹(SAFTU)의 지원을 받는 현장 노동자 위원회는 9월 초 파티마 가니(Fatima Gani) 임시 CEO에게 임금 협상 재개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현장 우편 노동자들은 기관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지난 10년 가까이 임금이 동결되거나 물가 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낮게 유지되어 온 점을 들어 즉각적인 임금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잔류 인력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용 불안정이 지속된다면 SAPO의 표면적인 재무 안정화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보 출처:

GovExec.com, Canadian Union of Postal Workers, The Tico Times, Korea JoongAng Daily, South African Post



작성자: ANGEL BARRIOS CUEVAS

행정 지원

SINDICATO NACIONAL DE TRABAJADORES DEL SERVICIO POSTAL MEXICANO
“CORREOS DE MÉXICO”